

Weekly Market Report

Feb 22, 2021

본 리포트는 해운시황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곡물이 끌고 선물(FFA)이 밀고
	Tanker	버는 만큼 샌다
	Container	북미 한파, 물류도 얼리다
	Sale & Purchase	컨선 신조 발주 지속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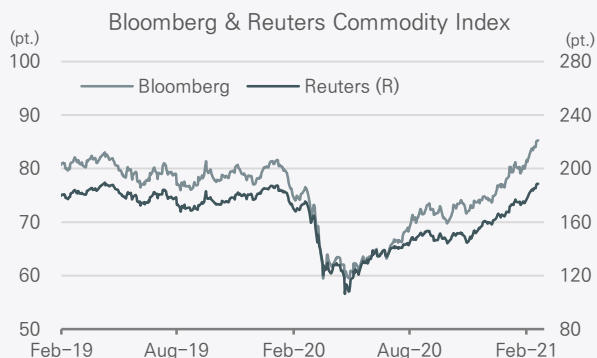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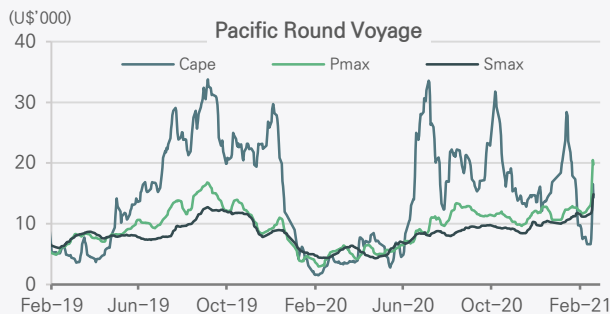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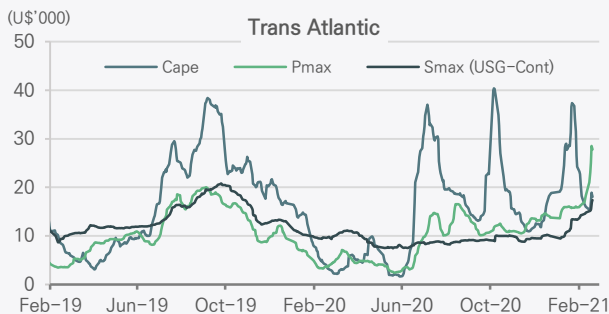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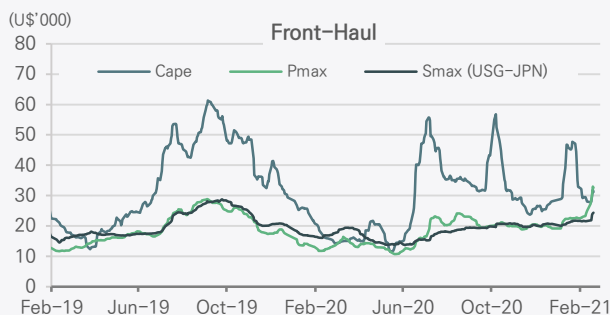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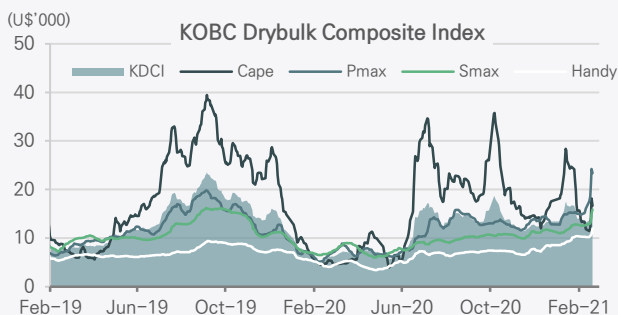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KDCI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2/22	18,023	16,681	31,213	18,063	14,313	23,369	32,500	27,800	19,750	15,867	24,375	17,375	14,870
2/10	13,209	11,831	27,975	15,988	6,613	16,090	24,990	18,320	12,350	12,701	21,650	14,825	11,377
증 감	▲ 4,814	▲ 4,850	▲ 3,238	▲ 2,076	▲ 7,701	▲ 7,280	▲ 7,510	▲ 9,480	▲ 7,400	▲ 3,166	▲ 2,725	▲ 2,550	▲ 3,493

Cape 파나마스 따라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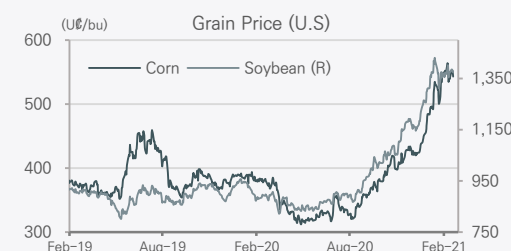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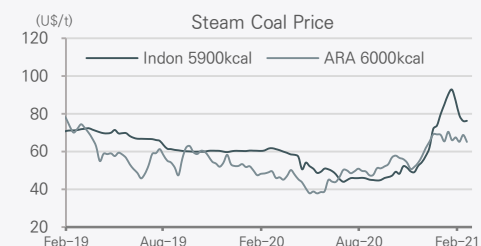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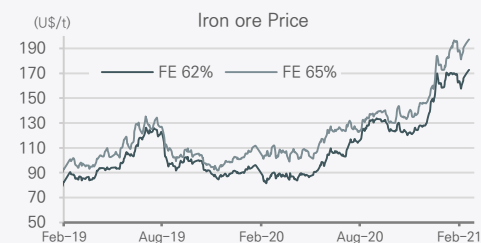
-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산업활동 재개에 따른 철강 및 철광석 수요 회복 기대감 증대
 - 연휴 기간 중 철근, 열연코일 등 철강제품 재고 증가분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며 철강제품 가격 상승 및 제철소 수익성 개선이 나타남
- 그러나 주중 나타난 Cape 시장의 급등락은 자체 수급 개선 보다는 FFA 변동성 확대 및 P'max 급등에 따른 선박 대체 수요(Pmax 2척→Cape 1척)가 주 원인으로 판단됨
 - 2월 초 이후 Cape 평균 용선료가 P'max 보다 낮은 상태 이어짐. 특히 Pacific R/V 항로는 Cape가 P'max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자 Cape로 대체하려는 수요 증가
 - 주 초 FFA가 급등한 점도 실물시장 심리를 자극하여 고가 성악이 집중 발생함
- 중국의 연휴 종료 및 제철소 수익성 개선 등에 따른 Cape 수요 개선은 긍정적
 - Cape 시장은 단기 저점을 통과하여 계절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 선행에 걸친 FFA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실물 수요요인과 관련이 낮은 시장 등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

P'max 곡물과 FFA, 불꽃이 튀다

- 브라질의 대두 수확 지연이 선택한 체선 증가, 미국산 대두 대체 구매 등으로 운임 시장에 대한 파급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FFA 시장의 폭발적인 변동성이 가세하며 건화물선 전체 시장을 건진
- 지난주 초 FFA 시장은 발틱거래소 근월물 증가 기준 일간 4천불 이상의 상승폭을 구현
 - 이는 P'max FFA 일간 상승폭으로 10년 내 최고치.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FFA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도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증가
 - FFA의 폭등에 따른 용선주들의 패닉 성악으로 실물 시장도 급등. 그러나 대규모 성악 이후 시장 내 화물이 소진되어 주 후반에는 하락 전환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 남미 대두 수확 본격화 및 미국의 옥수수 수출 수요 지속이 시장을 계속 지지할 것
 - 반면 미국산 대두는 브라질산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미국 동남부 폭설에 따른 물류 장애로 수출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남미의 영향력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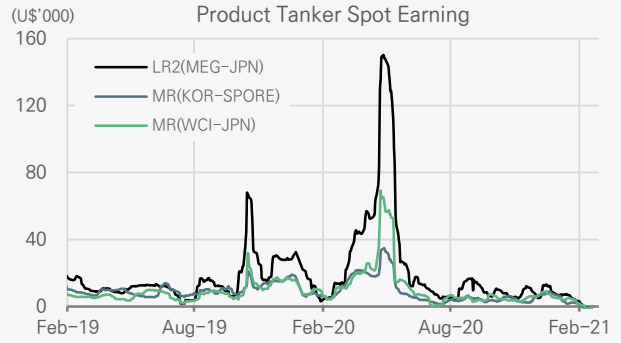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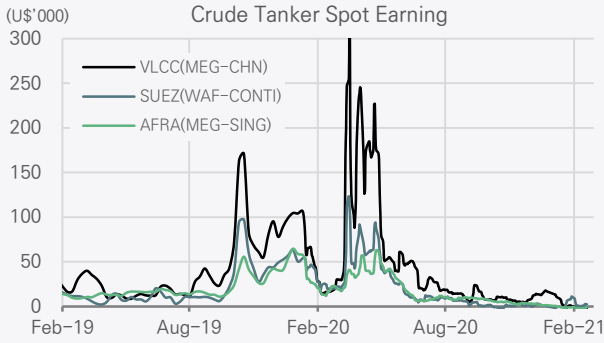
S'max 전 항로 강세

- 남미, NOPAC 등 곡물 수요 강세에 더해 인디아양 태평양 석탄, Baltic 결빙지역 통항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 등이 동시 작용하며 전 항로에 걸친 상승세 구현
- P'max와 마찬가지로 FFA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급등락 발생. 그러나 주요 항로 내 경쟁력이 양호하게 유지되어 상위 선행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 유지
- 당분간 건조한 장세가 이어지겠으나, 추가 방향성은 P'max를 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Tanker Spot Earning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32.58 ▲ 0.43	56.35 ▲ 2.94	68.94 ▲ 5.19	65.00 ▲ 0.83	6.97* ▲ 0.91
일수익(US\$/day)	-1,886 ▲ 628	2,344 ▲ 1,668	-387 ▲ 1,707	-376 ▲ 355	253 ▲ 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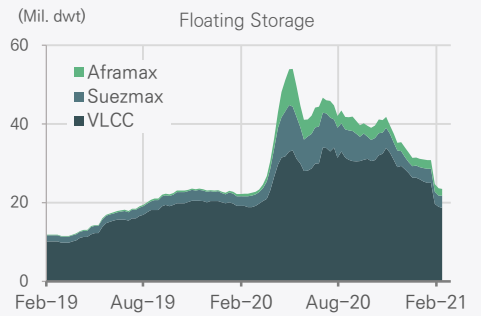
※ MR(KOR-SGP) 운임 : US\$/mt

원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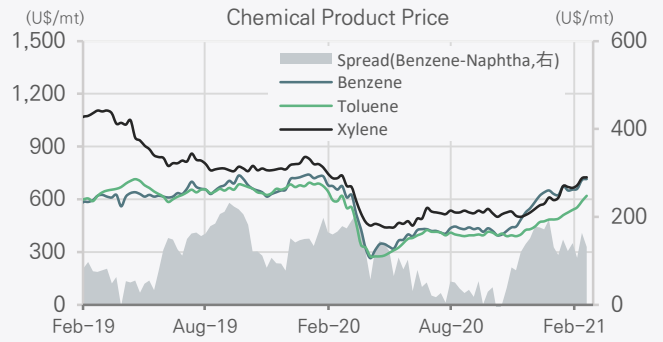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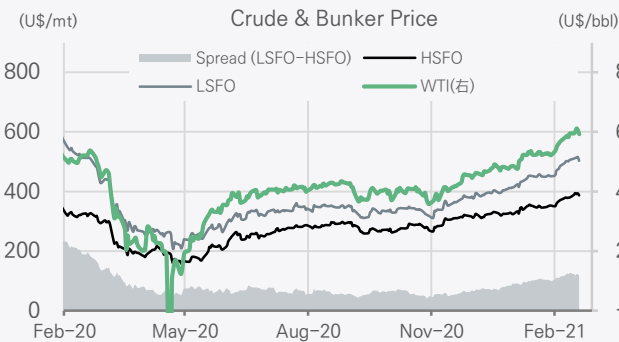
- 북반구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 차질 및 중국 연휴 종료 후 수요 유입으로 운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연료비 부담으로 일수익력 악화 지속
- VLCC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저속 운항 선박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며 약세 지속
- Suezmax는 대서양 수역 가용선박 감소 및 인도항 물량 유입으로 반등
- Aframax는 흑해, USG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공급 차질로 상승
- 미국 원유재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 회복, 중국 정제량 증가세 지속, OPEC+ 증산 가능성 증대로 점진적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형성

제품선

- 중국 복귀에 따른 동북아/싱가폴 항로 거래량 증가 및 미국 한파로 인한 유럽/USG 항로 난방유 물량 유입으로 상승세 전환



Crude & Product Price



	WTI	HSFO	LSFO	Spread
Price*	59.24	386.50	503.00	116.50
증 감	▼0.23	▲7.00	▼3.00	▼10.0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715 ▲ 5	620 ▲ 30	725 ▲ 5
Spread*	132 ▼ 32	37 ▼ 7	142 ▼ 32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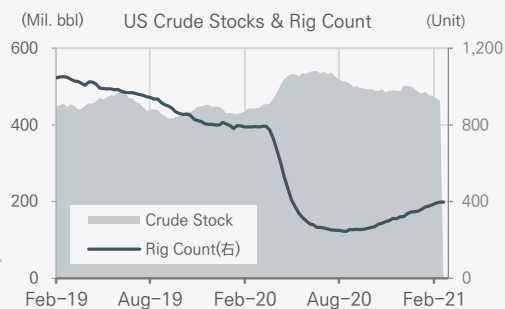
국제유가

- 미국 한파 지속에 따른 석유공급 차질로 주 초 강세 구현.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OPEC+의 생산량 증대 가능성 제기로 주 후반 하락 전환
- 미국 40개주 폭풍 특보 발령 등 혹한으로 인한 난방유 소비 급증
- 정전 및 동파로 원유 생산/정제시설, 송유관, 수출항만 운영 차질 : 생산 차질 50~120만 b/d, 정제 중단 400만 b/d(총 용량의 22% 수준)
-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26만 배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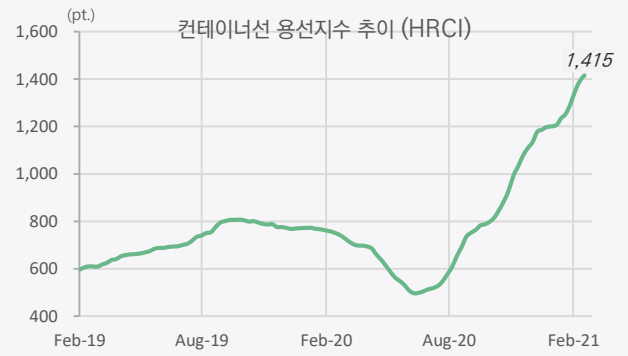
- OPEC+ 4월 증산 가능성 및 미국 원유생산 조기회복 움직임에 따른 석유 공급 증대가 수요 회복을 앞설 것이라는 분석으로 유가 하방 압력 증대

연료유가

- 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항만 정체 및 급유선 부족으로 보합 유지
- LSFO/HSFO Spread는 \$116.5로 축소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IS 패널리스트, Global Market Focus



항로별 운임지수

용선 성약

항로	금주	전주	+/-	'21평균	+/-
美서안	4,106	3,969	▲ 137	4,044	▲ 62
美동안	4,800	4,800	-	4,768	▲ 32
유럽	4,281	4,109	▲ 172	4,321	▼ 40
지중해	4,252	4,282	▼ 30	4,299	▼ 47
동남아	1,017	996	▲ 21	982	▲ 35
중동	1,856	1,859	▼ 3	1,913	▲ 57
호주	2,379	2,376	▲ 3	2,408	▼ 29
남미	8,268	8,392	▼ 124	8,577	▼ 309
日서안	256	256	-	251	▲ 5
日동안	265	265	-	259	▲ 6
한국	323	323	-	253	▲ 70
동서Africa	6,566	6,568	▼ 2	6,533	▲ 33
남Africa	3,019	3,023	▼ 4	3,128	▼ 109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A	2개월	7,600	▼ 300	1월4주
피더 1,100	A	10개월	9,900	▼ 100	2월2주
피더 1,600	A	11개월	19,400	▼ 2,100	2월2주
피더 2,200	C	12개월	15,000	▼ 4,000	2월1주
피더 2,700	A	24개월	17,000	▼ 2,700	2월2주
내로우비 5,000	B	12개월	30,100	▲ 7,300	2월2주
와이드비 5,500	A	12개월	35,000	▲ 5,200	1월4주
중형 7,000	B	12개월	23,500	▼ 8,500	2월1주
중형 9,000	A	36개월	39,600	▲ 7,600	2월1주

*A: '05년 이후 / B: '01~'05년 / C: '01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시장 동향

- 총 합** '21년 7주(2.15~2.19) SCFI 종합지수는 '2,876p'로 전주 대비 '50p' 상승. 1주일 간의 춘절 공식 연휴 기간(2.11~2.17) 중 고향으로 휴가를 떠난 중국 인구가 예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고 생필품, 방역용품 등 긴급화물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연휴 기간에도 높게 지속됨. 평소와 달리 연휴 직후 대부분 공장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며 수요 강세 뒷받침
- 미주항로** 서안과 동안 주요 컨항만 묘박지는 접안 대기 중인 선박들이 여전히 가득한 상황(대기 선박 수 : LA/롱비치항 35척, 서배너항 16척 등). 항만 현장 인력 집단감염에 따른 최소 인력 운영이 계속되며 항만 적체 지속. 한편 남동부를 중심으로 미국을 강타한 역대급 한파 영향으로 내륙 물류가 마비되며 북미 대륙 내 컨화물 공급망 경색 심화
- 유럽항로** 춘절 기간 휴무에 돌입했던 공장들이 예년과 달리 추가 휴무없이 빠른 속도로 조업을 재개하며 유럽항 수요 반등. 현재 단기 운임 수준이 작년 10월 급등 시점 대비 200%, '20년 2월 대비 300% 이상 높고 장기계약 운임 역시 전년 대비 45% 이상 상승한 상태이나, 작년 1분기 말과 같은 수급 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기계약 체결 검토 활발
- 연근해/기타** 춘절 직전부터 상하이 항만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수출 컨테이너 박스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며 컨박스 수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 증가. 그러나 북미와 유럽 항로 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회송된 컨테이너 박스가 원양 항로로 재 투입될 가능성 높아짐. 생필품과 방역용품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대부분 항로 운임 시황 강세

주요 뉴스

- 『美서안 핵심 컨테이너 항만 적체 지속, 강추위 여파로 동안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 역시 접안 스케줄 지연』 (스플래쉬247 - 2021.2.16)
 - 2월 15일 기준 LA항과 롱비치항 인근 묘박지에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박 35척이 닻을 내리고 접안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남. 1월 29일 37척이 대기 중일 때와 비교해 2척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적체 악화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 한편 동안의 주요 컨항만들도 평소보다 접안이 지연되며(서배너항 → 2월 12일 기준 16척 접안 대기, 뉴욕항 → 평소 대비 1~2일 접안 지연) 북미 대륙 내 공급망 경색 지속
- 『'21년 1월 美 소매판매 5.3% 증가, 최근 7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파이낸셜타임즈 - 2021.2.17)
 - '20년 12월 美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긴급 재정지원책에 포함된 1천4백억 달러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21년 1월 미국 소매판매 증감률이 최근 7개월 중 가장 높은 5.3% 기록. 일반품목군(자동차, 생활가전, 가구, 여행용품 등)의 판매가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식당 및 주점 매출 역시 6.9% 상승. 新정부의 1.9조 달러 지원책 통과 시 인플레이션 및 예산 부족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상존
- 『유럽항로 고운임 시황 지속, 공급망 붕괴에 따른 추가 피해 미연에 방지코자 글로벌 화주들 장기 계약 검토 활발』 (JOC - 2021.2.15)
 - 춘절 연휴를 전후하여 유럽항 컨화물 수요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운임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증대. 다만 현재 유럽항 단기 운임 수준은 급등하기 시작한 '20년 10월 대비 약 200%, '20년 2월 대비 약 300% 이상 높은 상황. 장기계약 운임 수준 역시 '20년 대비 4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들의 안정적인 선박 확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당분간 장기계약 운임 강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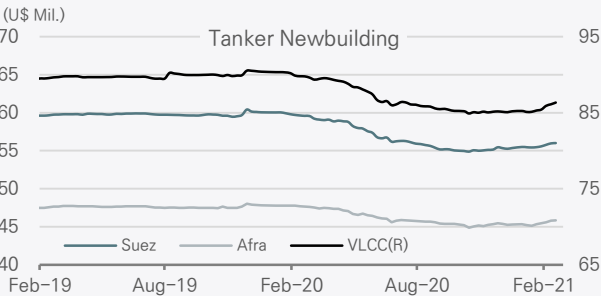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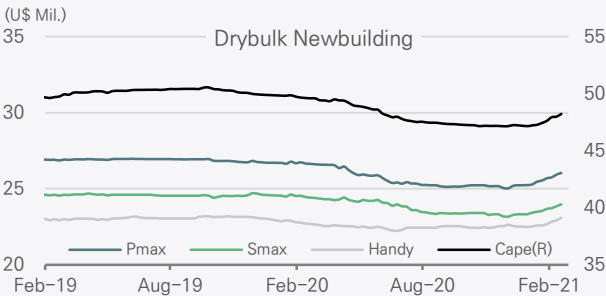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유럽 및 북미 선주 활발한 신조 발주

신조선 - Zodiac Maritime 4척(15,000 TEU), Seaspan 5+5척(15,000 TEU), 범주해운 1척(1,800 TEU)
각각 현대 미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발주

중고선 건화물선 중소형선 중심 거래 활발 / 유조선은 전반적 거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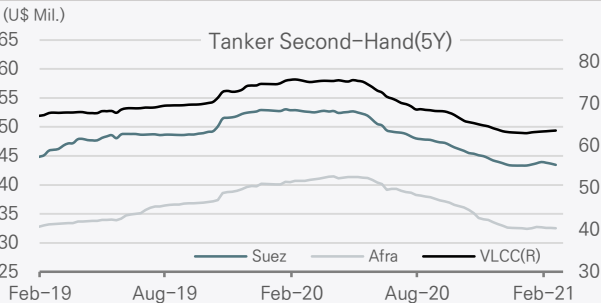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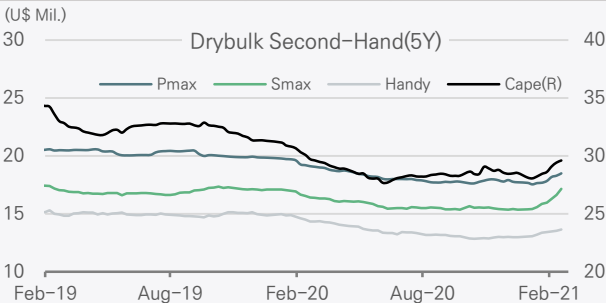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1평균	'20평균	금주	+/-	'21평균	'20평균
Drybulk	Cape	180K	48.23	▲ 0.24	47.68	48.24	48.02	▲ 0.07	47.69	48.46
	P'max	76-82K	26.04	▲ 0.11	25.67	25.73	25.16	▲ 0.07	24.88	25.62
	S'max	56-61K	23.97	▲ 0.12	23.66	23.85	24.98	▲ 0.12	24.61	24.93
	Handy	32-37K	23.08	▲ 0.16	22.74	22.52	21.10	▲ 0.03	21.03	21.43
Tanker	VLCC	310K	86.34	▲ 0.23	85.61	87.15	88.07	▲ 0.02	87.94	94.45
	Suezmax	160K	56.00	▲ 0.04	55.66	57.03	57.42	▲ 0.06	57.21	63.72
	Aframax	105K	45.82	▲ 0.03	45.48	46.26	44.94	▲ 0.13	44.71	50.45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1평균	'20평균	금주	+/-	'21평균	'20평균
Drybulk	Cape	180K	29.60	▲ 0.18	28.78	28.78	20.72	▲ 0.54	19.47	19.05
	P'max	76-82K	18.49	▲ 0.20	17.95	18.29	13.93	▲ 0.18	13.12	12.00
	S'max	56-61K	17.15	▲ 0.53	16.13	15.84	11.18	▲ 0.31	10.50	10.29
	Handy	32-37K	13.66	▲ 0.13	13.40	13.59	8.27	▲ 0.12	7.96	7.72
Tanker	VLCC	310K	63.49	▲ 0.08	63.22	70.58	43.80	▲ 0.16	43.20	47.76
	Suezmax	160K	43.47	▼ 0.21	43.65	49.20	28.76	▼ 0.24	28.91	33.43
	Aframax	105K	32.54	▼ 0.02	32.58	38.40	20.68	▼ 0.04	20.81	26.30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1평균	'20평균	금주	+/-	'21평균	'20평균
Bulker	415	▲ 5	415	335	425	▲ 5	434	336
Tanker	425	▲ 5	426	349	435	▲ 5	447	350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Corp.		Jangsoo Shipping Co., LTD.		Flaship PTE. LTD.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Co., LTD.		Basim Chartering Corp.		Max-Bridge Co., LTD.		Greatwall International Marine LTD.
	Ace Chartering Corp.		Kaya Shipping Co., LTD.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ipbroking Services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Co., LTD.		Good Turn Transportation LTD.		Evershine Consulting CO., LTD.		
	Ocean Robin Shipping Holding Corp.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Co., LTD.		Foro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Co., LTD.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PTE. LTD.
	Kims Maritime Co., LTD.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Co., LTD.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Global		HIT Marine Company LTD.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SSY London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CO LTD.		Euroline Global
	Tradlinx						